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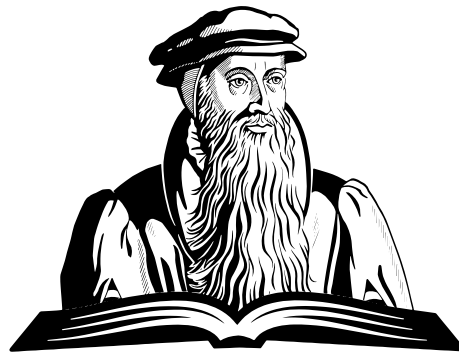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

#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

## 강의 10: 성막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http://www.freechurchcontinuing.org)

# 학습단계

##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 강의 10

## 성막

### 강의 주제: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 강의 스크립트 10

우리가 성막에 대한 묘사를 보면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지루하게 기록된 성막에 대한 모든 자세한 내용을 건너뛰고 싶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신학에 대한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성경을 주의깊게 보려고 멈춰서서 묵상하면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야 할 기쁘고 기분좋은 진리들을 볼 수 있도록 창을 열어줍니다. 재미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이 펼쳐지는 흥분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성막은 전체 성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막을 설계하는데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막의 구성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학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따라야 했던 질서와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 어떤 방식으로 신약성경과 그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17세기 네델란드 신학자였던 헤르만 빙찌우스(Hermann Witsius)는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동안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 분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40일이나 걸렸다” 세상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는 성경 한 장보다 약간 더 필요했지만 성막을 설명하는 데에는 성경 여섯 장이 사용되었다. 출애굽기의 절반 정도 분량이 실질적인 출애굽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막의 설계와 건축에 대한 설명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죄악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들이 성경의 남은 부분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구속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핵심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 바람이 불 때 그와 함께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자신의 백성과 화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확신시키시면서 언약의 약속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계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임시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성막”이란 텐트를 의미하며 다른 모든 텐트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여호와의 장막” 혹은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텐트는 “성소”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텐트는 “증거막”으로도 불렀습니다. 율법의 두 돌판은 “증거판”으로 불렸으며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내부에 있는 언약궤 안에 두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막이 성전으로 바뀔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성막은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위치했는데 성막 주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열대로 이 열두지파는 각각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성막과 진영의 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제일 첫머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25:8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언약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출애굽기29:45,46에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막의 목적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자, 여기에 유사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24:15,16에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옛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40:34에 기록된 이와 유사한 표현을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성막을 통해서 영속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막에서 발견되는 복음의 패턴과 복음의 내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를 연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이 말씀하신 규정대로만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십계명의 제 2계명을 통해서 입증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오직 내가 지정한 대로만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도덕법과 관련하여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12:32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 성경적인 율법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예배행위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신약성경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양식대로 건축되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25부터 레위기7장에 이르는 성경의 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31:11에는 다음과 같

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표현은 전체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있어서 모든 혁신과 인간의 창조성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전해주시면서 정확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신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의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 기구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부분의 공급과 배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바로 구속받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부분을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마주쳤을 순서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신학적인 주제와 구속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추적할 것입니다. 기구의 각 부분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이 따랐을 순서도 역시 복음진리를 전달해 줍니다.

첫째로 전체 그림을 보세요. 지붕이 없이 하늘로 뚫린 넓은 성막틀이 있습니다. 이 틀은 여러 기둥에 걸쳐 있는 흰색천과 휘장으로 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받침과 갈고리와 가름대 성막틀 안에는 성막이 있는데 이는 여호와 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성막틀 안에 있으면서 성막 밖에는 구리로 된 제단과 동으로 된 대야가 있었습니다. 성막 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넓은 부분은 성소였으며 가장 안쪽에 있는 더 좁은 부분은 소위 지성소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부분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일곱개의 주요한 부분만을 간단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 훨씬 더 많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성막틀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바깥쪽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분리되고 거룩하신 분임을 보여 줍니다. 그는 구리 받침과 은가름대와 고리로 결합된 네 기둥에 붙어 있는 파란색, 보라색, 주홍색, 그리고 흰색 휘장으로 만들어진 문을 통과합니다. 제사장이 그 문을 통과하여 성막틀로 들어올 때 처음으로 그가 보는 것은 구리로 만든 제단입니다. 바로 자신의 눈 앞에 그 제단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단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각각의 코너에 네 뿔이 있는 사각형 제단은 구리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제단은 금과 같은 다른 물질로 도금된 것보다 더 견고했을 것입니다. 제단에는 구리로 만든 팬과 부삽과 집게와 같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있는 불은 절대로 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를 위한 희생제사와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향해 간 곳은 바로 이 구리로 만든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대속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첫번째 요소 없이는 제사장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희생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제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사실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실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사역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놋대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놋대야에는 물이 가득 차 있을 텐데 거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의 몸을 철저히 씻었습니다. 성막에 접근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만약 씻지 않은 채 성막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이어지는 이 다음 단계는 의식적인 면에서는 세척과 정결의 필요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정결한 상태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정결, 곧 영적인 정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1:7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성막 자체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성막은 사중으로 된 천으로 덮혀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위로 볼 때 가장 밑에는 청색, 자색, 홍색의 가는 베실로 만든 천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들인 그룹들의 형상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염소털로 된 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붉게 물든 양의 가죽으로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방수가 되는 가죽으로 된 층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휘장을 지나서 성소라고 불리는 성막 안에 있는 첫 번째 방 첫 번째 구역으로 들어가

면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금으로 된 등잔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가장 먼 방향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막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왼쪽으로 가면 금등잔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등잔은 순금을 펴서 만든 단단한 하나의 조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무와 비슷한 모양으로서 가운데 기둥이 있고 각각 세개의 가지가 뻗어져 나와 도합 일곱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기에 등잔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서 어두운 방을 밝힙니다. 불을 붙이면 그 내부의 모습은 마치 지상에 있는 천국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벽과 천장에 있는 그룹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등잔대들은 요한복음 8:12에 기록된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구세주를 보여주는 빛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연인은 죄와 어두움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등잔대는 주님의 임재와 구원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밝히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가리키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건너편 성소의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진설병은 임재의 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테이블도 역시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데 그 테두리는 금으로 된 테로 둘러져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진설병 12 조각이 있는데 여섯개씩 두줄로 되어 있으며 매 안식일마다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떡 조각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주어진 영원한 약속과 예비하심을 항상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떡을 진설하는 예식은 영원한 언약으로 불렸습니다. 이 떡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당연히 우리도 살아있는 말씀이시요. 요한복음 6:35에서 나오듯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자신을 먹는 사람들은 결코 주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다섯 번째 기물은 분향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막에 들어가면 이 분향단이 성소의 가장 먼 쪽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모서리에 도합 네개의 뿔이 있는 이 분향단도 역시 순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달콤한 향을 태웠는데 오직 이것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분향단의 뿔에 속죄제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시은소 앞에서 드러지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만약 시편 141편의 시작부분을 노래한다면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향처럼 피어올라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2절)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상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8과 8:3,4은 이런 묵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분향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달콤하고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마치 향기가 휘장 안에 있는 언약궤와 시은소 바로 앞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곧 세례 요한을 구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한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났던 곳이 훗날 성전(성막이 아니라) 안에 있는 분향단 앞이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의 첫시작 부분에서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성물은 휘장입니다.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지성소를 나누는 큰 장막이 있었습니다. 분향단 뒤에 있으면서 두 구역을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막은 아주 무거운 천으로 만들어졌고 가운데 나뉘어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휘장을 옆으로 돌아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일단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성물이 있는데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지성소 자체는 4.5미터 정도되는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대속죄일에만 가능했습니다. 그 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시은소에 피를 뿌리는데 이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훗날 성전에 있던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아래에서 위로 찢으셨던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4:16에 나오는 이 구약성경의 이미지와의 관계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은소를 기억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언약궤와 시은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결국 성막 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도 바로 이곳이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 전체에서 핵심적인 곳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언약궤는 직사각형이고 그 안과 밖이 다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 그 자체만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생생한 묘사가 거기에 가득합니다. 히브리서9:4에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고 있는 황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만질 수 없었고 만지게 되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은소는 두드러져 편 순금 한 조각으로 만들어졌고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시은소의 양편에는 두개의 날개를 가진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날개가 서로를 향해서 위로 펼쳐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였는데 이는 성막 전체가 가진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시은소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보여주는 작고 일시적인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핵심적인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에는 자신의 임재를 구름으로 나타내셨고 밤에는 성막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소 바로 위에 머무는 불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 생활 내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멈출 때에는 그들도 천막을 치고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는데 바로 성막에서 발견되는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하시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그림입니다.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거처에 대한 참된 본이 됩니다. 우리는 성막이 땅에 천국의 그림이라는 사실을 이미 암시했습니다. 천정과 벽을 덮고 있는 각양 색상의 천 위에 정교하게 새겨진 그룹과 시은소 위에 있던 그룹 그리고 이 시은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당시 지어진 성막이 보다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위한 모델이나 견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5:9-40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성막이 견본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관계된 구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성막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처소에 대한 모델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실체에 대한 일시적인 모형입니다.

히브리서8:5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9:8,9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인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9장23, 2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10:1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것은 그림입니다. 성막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그림입니다. 구약성경의 상징들은 궁극적으로 신약성경의 실체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약의 의식들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막과 성전의 상징들은 영구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이런 의식으로 표현된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들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 구약의 의식적 상징들과 제소들과 규율들을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오류에 대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를 금하고 대적했습니다.

갈라디아서4:9에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2:17은 장래 일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4장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행전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10장에 이르는 전체 내용을 보았고 이 내용이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자들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명하시고, 규정하시고, 제정하신 신약의 예배가 제시하는 규정은 훨씬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예배의 영광은 제단이나 향이나 제사장의 섬김과 같은 지상의 상징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배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설교, 성경봉독, 기도, 시편찬송 그리고 성례와 같은 단순한 규정을 통해 우리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막은 신약성경에서 비로소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1:14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고”가 되며, 이어서 “우리가 거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리켰습니다.

또한 성막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후서6:16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은혜언약에 대한 표현이 성막에 대한 표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로운 모습을 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성취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안에서”, 곧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마18:20)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은 천국에서 성취됩니다. 이미 말했지만,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에서 성막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거처의 견본이자 모형이며 그림자이자 상(figure)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본문을 함께 비교하며 종합해 보면서 이 두 본문이 얼마나 비슷한지 살펴봅시다. 앞에서 우리는 출애굽기29:45,46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2:13로 달려가서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서서”

성막과 이후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한 중심 장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훨씬 위대한 실체에 의해서 영원히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상징하던 영적인 진리 곧 자

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편23:6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시인의 갈망과 같이 절규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편27:4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소원은 시편 전체에 걸쳐서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보시거나 시편63편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 이런 노래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이런 노래들이 상징하는 영원한 실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노래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모임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하늘에서 그 분과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성막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성막의 신학적인 내용을 설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이 상징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 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실체를 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구약의 일시적인 상징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하늘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은혜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가올 천국에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희생제사에 대한 구약신학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구약성경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